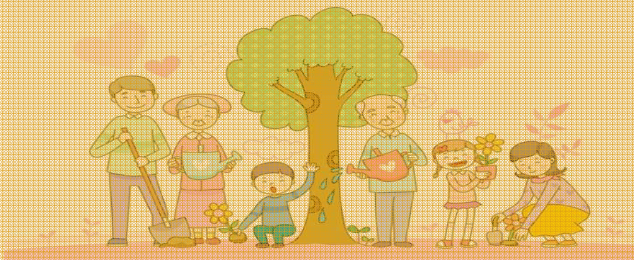




식목일 - 매년 4월 5일



식목일(植木日)은 나무를 아끼고 잘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날이다. 해마다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하여 국가적인 행사로 나무를 심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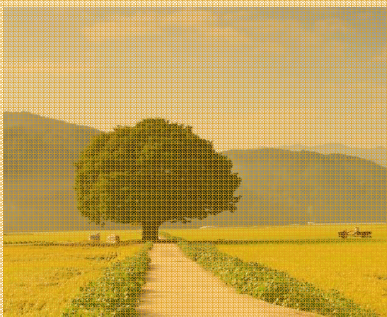
식목일의 유래는 멀리 미국으로 거슬러올라간다. 1872년 4월 10일 미국 네브래스카주에서 제1회 식목 행사가 열렸으며, 그 뒤 식목 운동을 주창한 J. S. 모팅의 생일인 3월 22일을 아버데이(Arbor Day : 나무의 날)로 정하여 각종 축제를 벌인 것이 시초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것이다.

한국에서는 1948년 제정되어[1]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건'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에 3월 15일을 '사방의 날'로 지정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이듬해 공휴일로 부활되었다.

4월 5일이라는 날짜는 신라 문무왕 때인 677년, 당의 세력을 몰아낸 날인 음력 2월 25일을 양력(그레고리력)으로 환산한 것이다. 또, 조선 성종이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낸 날이기도 하다.

1973년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으로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하자는 견해가 있었으나 청명, 한식 등과 겹치는 날이라 하여 공휴일로 유지되었으나,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맞춰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문을 2005년 6월에 공포하였고, 시행 부칙에 의해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법정기념일로 변경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4월 5일 식목일 날짜를 앞당기는 것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2] 2007년 6월 6일 산림청은 식목일의 이름과 날짜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으나[3] 2008년 3월 식목일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하기로 밝혔다. 하지만 심각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인해 2014년부터 식목일을 3월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무 심는 방법

1. 심을 묘목의 뿌리 부분의 1/5배 이상으로 구덩이를 파주세요. 구덩이를 파 할 때, 겉흙과 속흙을 따로 모아두고 둘과 낙엽등을 골라냅니다.
2. 부드러운 겉흙을 5~6cm정도 넣은 다음, 묘목을 곧게 세워 겉흙부터 넣어 구덩이의 2/3 정도를 채웁니다.
3. 묘목을 살며시 흔들어주어 뿌리 사이에 흙이 잘 채워지도록 해주시고, 밟아줍니다.
4. 지면보다 약간 높게 해주시고,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 낙엽이나 풀 등으로 덮어줍니다.

이 달의 INTERVIEW



국적 : 캄보디아(Cambodia)

성명 : CHHON BONHOEUN(천번헌)

나이 : 28세



우선 캄보디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캄보디아는 북서쪽으로 태국과 라오스, 동남쪽으로는 베트남을 접하고 있는데 수도는 프놈펜(Phnom Penh)이며 인구는 15,458,332명(2014년 기준)으로 세계 68위이다.

기후는 전형적인 열대온순 고온다습하여 연평균 27℃ 내외이며 면적은 181,035km²로 한반도의 약 4/5 정도로 세계 90위에 해당한다.



[사진/1] 캄보디아 국토

주요도시로는 수도 프놈펜(Phnompenh) 외에도 크라티(Kracheh)와 땃똥똥(Battambang)이며 언어는 크메르어(Khmer Language), 프랑스어(French), 영어(English) 등을 사용하며 민족은 크메르족(90%), 베트남계(5%), 중국계(1%), 기타(4%)로 구성되어 있다.

GDP는 169억\$로 세계 111위(2014년 기준)이고 종교는 남방불교(95%), 기타(5%)이다.

*참조 : 캄보디아 국가정보 :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CHHON BONHOEUN의 고향은 수도 프놈펜에서 비행기로는 약 1시간, 버스로는 6시간 정도 걸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씨엠립 앙코르와트(Angkor Wat) 인근의 메콩강가 조그만 시골마을이다.

앙코르와트는 너무도 유명한 누구든지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세계문화유산이므로 좀더 설명을 하기로 한다.



[사진3]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Angkor Wat)는 앙코르툼의 남쪽 약 15km에 있으며, 12세기 초에 건립되었다. 앙코르는 왕도(王都)를 뜻하고 와트는 사원을 뜻한다. 당시 크메르족은 왕과 유명한 왕족이 죽으면 그가 믿던 신(神)과 합일(合一)한다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왕은 자기와 합일하게 될 신의 사원을 건립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유적은 앙코르왕조의 전성기를 이룬 수리아바르만 2세가 바라문교(婆羅門敎) 주신(主神)의 하나인 비슈누와 합일하기 위하여 건립한 바라문교 사원이다.

그러나 후세에 이르러 불교도가 바라문교의 신상(神像)을 파괴하고 불상을 모시게 됨에 따라 불교사원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건물·장식·부조(浮彫) 등 모든 면에서 바라문교 사원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바깥벽은 동서 1,500m 남북 1,300m의 직사각형으로 웅장한 규모이며 정면은 서쪽을 향한다. 바깥벽 안쪽에서 육교로 너비 190m의 해자(壕字)를 건너면 3기(基)의 탑(塔)과 함께 길다란 익랑(翼廊)이 있고 여기서 돌을 깔아놓은 참배로(參拜路)를 따라 475 m쯤 가면 중앙사원에 다다른다.

사원의 주요 건축물은 웅대한 방추형 중앙사당탑(中央祠堂塔)과 탑의 동서남북에 십자형으로 뻗은 익랑, 그것을 둘러싼 3중의 회랑과 회랑의 네 모서리에 우뚝 솟은 거대한 탑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성은 입체적이고 중앙은 약간 높다. 회랑의 높이는 제1회랑(215×187m)이 4m, 제2회랑(115×100m)이 12m, 제3회랑(60×60m)이 25m이다. 세계의 중심이며 신들의 자리를 뜻하는 수미산(須彌山)은 돌을 사용하여 인공적으로 쌓아놓았으며, 높이 59m의 중앙사당탑의 탑 끝에서 3중으로 둘러싼 회랑의 사각탑 끝은 선으로 연결해보면 사각추(四角錐)의 피라미드 모양이 된다.

이 사원의 뛰어난 미술적 건축양식은 인도의 영향도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건물의 형태나 석조장식(石彫裝飾) 등 모든 면에서 앙코르양식의 독자적인 양식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전장(全長) 760m에 이르는 제1회랑벽(回廊壁)의 부조, 제2회랑 안의 돌로 조형한 샘물[泉水], 제3회랑 내부의 화려한 십자형 주랑(柱廊)과 탑 등은 뛰어난 구조물이다. 조형에서는 하늘의 무희(舞姬) 아프사라스, 여러 개의 머리를 마치 부채처럼 치켜든 커다란 뱀, 창문·기둥의 장식 조각 등이 돋보인다. 앙코르양식은 13세기 말부터 쇠망하기 시작하여 15세기경에는 완전히 멸망함에 따라 앙코르와트도 정글 속에 묻혀버렸다.

1861년 표본채집을 위해 정글에 들른 프랑스 박물학자가 이곳을 발견, 그때부터 다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지역은 1972년부터 외부인에게 폐쇄된 이후 낮이면 베트남군이, 밤에는 크메르 루지의 게릴라가 번갈아 장악하면서 전화(戰禍)와 약탈로 훼손되어 수많은 불상이 조각난 채 나뭇굴고 대부분이 외국으로 유출되어, 완전한 복구는 어려운 상태이다. 1982년 집계를 보면 앙코르와트의 중요 유물 30점 이상이 없어졌고, 전체 유적의 70%가 복원불능의 상태로 파괴되었으며, 사원 근처 왕궁의 유물 약 1,000점이 도난·파괴되었다. 유네스코에서는 1983년 이 유적지의 복원을 위해 조사단의 파견을 캄보디아 당국에 통보한 바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앙코르와트 [Angkor Wat] (두산백과)

CHHON BONHOEUN의 고향에는 바다만큼 넓은 돈레샵 호수가 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돈레샵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한다.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물 반 고기 반”이라 한다.



[사진3] 끝이 없는 돈레샵호수

CHHON BONHOEUN의 가족은 아빠, 엄마 그리고 누나 둘이 있는데 큰누나의 남편이 바로 돈레샵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라 한다. 작은 누나는 미혼으로 치과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48만 리엘(KHR, 1KHR=0.25원)이니 한국 돈으로 월 약 12만원(약 ₩120,000)의 급여를 받는다고 한다. 이 지역은 기업체는 없고 쌀 농사와 고기 잡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대학을 가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게 되는데 대학졸업자는 기업체가 많지 않고 서비스업은 발달되어 있어 주로 은행, 호텔 등에서 일하게 되는데 급여는 월 120~150만 리엘(KHR ; 약 30만원~375만원) 정도 받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농사 일 또는 도시의 공장 특히, 봉제공장에서 일하게 되는데 급여는 월 40만 리엘(약 10만원) 정도 받는다.

CHHON BONHOEUN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식당에서 일하는데 급여는 월 40만 리엘(약 10만원) 정도 받았다. 식당에서 일하면서 라디오(Radio)를 들었는데 ‘한국으로 일하러 갈 수 있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홍보 방송이었다. CHHON BONHOEUN은 한국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홍보방송에 따라 NPIC(캄보디아 고용센터)에 한국어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다.

한국어교육은 3개월 과정이며 수강료는 40만 리엘(약 10만원)이었다. 한국어 강의를 신청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도 공부하였다. 식당에서 일하면서 3개월 과정을 마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만약, 학원으로 옮겨 계속 공부하게 되면 기숙사비와 등록금을 합쳐서 월 80만 리엘(약 20만원)이 소요되므로 계속 강의를 들을 수 없어 식당에서 일하면서 전에 배웠던 내용을 보고, 읽고 쓰기를 반복하면서 스스로 2년을 공부하여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합격하고 6개월을 기다린 후 고용계약에 따라 한국에 2011년 06월 01일 입국하였다.

한국에 처음 도착하여 너무도 다른 환경에 어리둥절했다. 처음 직장이자 현재의 직장 한번도 작업장을 변경하지 않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자유무역 제2공구에 있는 (주)동남이다. 모든 것이 생소하고 부족했지만 대표님과 전 직원들이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셨다. 회사는 동남아 지역에서 모래를 수입하여 모래를 씻고 포장하는 일 등을 하므로 어렵고 힘 들었지만 열심히 일했다. 회사에는 40여명의 직원이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캄보디아근로자 3명이 근무한다. 아침 08시에 작업을 시작하여 저녁 20시까지 12시간씩 일하는데 아침마다 대표님 이하 전 직원들이 15분 동안 체조를 몸을 풀 후 작업을 시작한다. 대표님은 언제나 아침에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열심히 하세요” 하며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회사는 매년 봄, 가을로 2회 산행을 하는데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유급처리해 주시고 월 1회 회식과 송년회 그리고 회식 때에는 캄보디아근로자들이 제일 좋아 하는 삼겹살, 생선회와 오리고기 등을 사 주신다.

그리고 회사 4층에 있는 기숙사, 점심과 저녁을 제공해 준다. 토, 일요일에는 대표님께서 외식으로 매 주일 볶음밥 등을 시켜 주신다. 너무도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 급여는 월 210만원 정도를 받았다. 50만원 정도는 한국에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50~160만원 정도는 캄보디아로 보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활비 그리고 형님의 빚을 갚아 드리고 지금은 양크르라트에서 10분 거리에 10,400만 리엘(약 2,600만원) 짜리 집을 하나 본인이름으로 장만했다.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를 알게 된 것은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회사 직원이 한국어도 배울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들이 모이는 곳을 안내해 줘서 찾아오게 되었다. 한국어, 컴퓨터, 법률, 산업안전 등도 배우고 특히 캄보디아근로자들을 만나서 커뮤니티활동과 노래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

CHHON BONHOEUN은 한국노래부르기를 좋아해서 지난해 고용노동부 주최 “2014년 한국문화페스티벌” 한국노래 부르기대회에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대표로 출전하였다. 이때 캄보디아 오누이팀으로 여성 파트너와 함께 고운 한복을 입고 출전하여 많은 외국 인근로자와 한국인 관람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사진5] 2014 한국문화페스티벌 출연

CHHON BONHOEUN은 앞으로 재고용을 희망하고 있고 좀 더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어를 더 많이 배워서 캄보디아에 돌아가 관광사업을 하고 싶어 집도 관광지인 양크르아트 주변에 구입했다. 그리고 새집에서 결혼하여 행복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달콤한 꿈을 꾸고 있다. 캄보디아는 결혼생활이 한국과 달라 결혼하면 신부집에서 살아야 함으로 장인장모를 모셔다 살 것이라 한다. 신부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대박이다. 서방 얻고 집도 얻고 부모님도 모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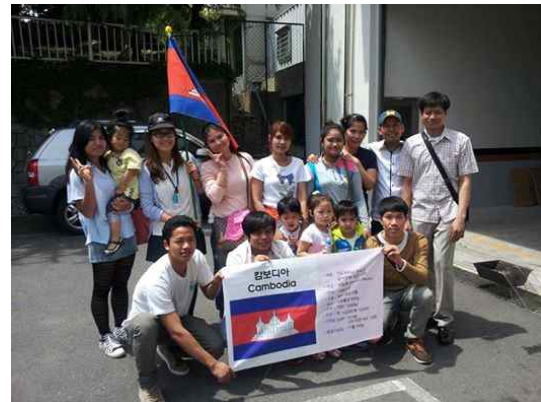
CHHON BONHOEUN은 캄보디아근로자들을 위해서 가끔 캄보디아음식커뮤니티를 통해 근로자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 근로자들과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있다. 캄보디아 전통음식과 쌀국수 등으로 캄보디아 냄새가 뭉신 나도록하여 캄보디아근로자들의 입맛을 돋우고 있다. 캄보디아음식은 당연하지만 한국음식도 너무 좋아하는데 한국에서 먹어 본 음식이 모두 다 맛있지만 특히, 김밥, 불고기, 삼겹살, 생선회, 삼계탕과 갈비탕 등을 매우 즐겨 먹는다. 어쩜 한국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캄보디아근로자도 좋아하는 것을 보니 한국 사람과 캄보디아 사람의 DNA가 비슷하지 않은 가 싶다.



[사진6] 커뮤니티를 위한 캄보디아 음식 준비



현재 CHHON BONHOEUN은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CFC)에서 캄보디아 커뮤니티 대표를 맡아 근로자들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캄보디아 근로자들의 한국생활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동료의 입장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다.



[사진7] 센터 내 캄보디아근로자 커뮤니티

CHHON BONHOEUN은 4월1일 기업사랑 시민축제에서 모범외국인근로자 상도 받으며 성실한 외국인근로자임을 입증받았다.



[사진8] 기업사랑 시민축제

CHHON BONHOEUN FROM CAMBO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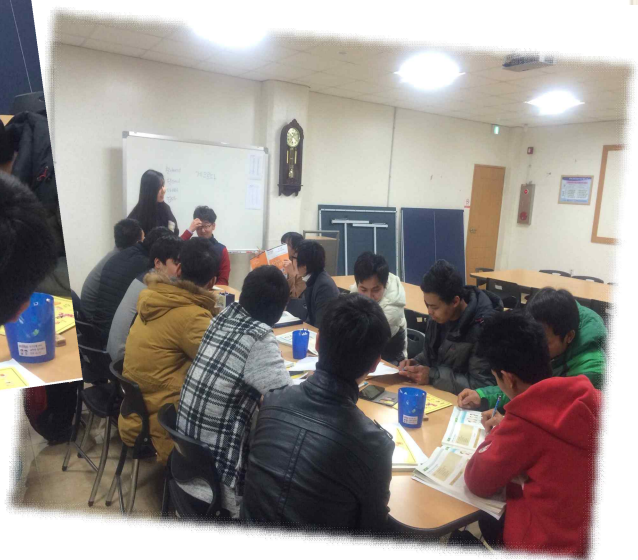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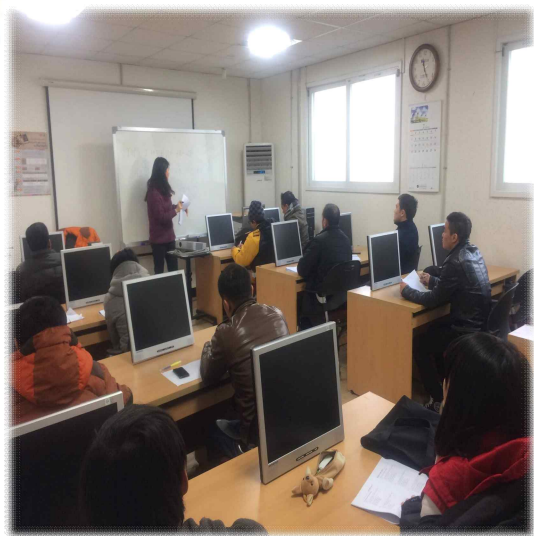
3월 봄바람 수업

3월1일 일요일 봄 기운과 함께하는 첫 수업^^

어제까지 마지막 겨울이 가고 봄기운과 함께 찾아온 3월의 첫째 날

삼일절인 일요일을 맞이했어요 ^^

오늘도 수많은 외국인력분들께서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를 방문해주셔서 열심히!!! 한국어 수업과 컴퓨터 수업에 참여 해주셨습니다.



동아리 활동



동화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동화구연 교실

동아리 활동이 시작된 3월의 첫날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동화로
한국어를 재미있게 배워보는
동화구연 동아리를 실시했습니다.

유익한 동화로 어려운 한국어를 더욱
재밋고 쉽게 배우는 시간^^



당신이 최고야~~@@ 신나는 노래교실
오늘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의 노래교실에서는
"당신이 최고야~~!!"를 배우며 함께 신나게 부르는
시간을 가졌어요 ^^
바쁜 한주를 보내고 센터에 와서 한국어, 정보화
교육과 동아리 활동에 참가하는 외국인력분들
"당신이 최고야!!"입니다.



마산의료원 무료진료

마산의료원에서 실시하는
2015년 3월 무료 진료가
3월 1일 센터에서 진행 되었습
니다. 평일 병원 방문이 힘든
외국인근로자분들에게 많은 도움
이 되었습니다.
4월 무료진료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2015년 4월 5일 예정)



WEDUDAY 학습의날



3월 4일 수요일

직무능력 향상 학습의 날 weduday였습니다.

이번 행복속담은 남정순 팀장님이 발표 해 주셨는데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속담이었는데, 아무리 비밀히 하는 말도 새어 나가기 쉬우니, 말은 항상 조심해서 하라는 뜻을 가진 속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시간 발표한 상담사례에서 우수상담사례를 뽑았는데 캄보디아의 신지아쌤이 최우수 상담사례로 뽑혀 상을 수여 하였습니다.

뒤이어 2015년 사회공헌 활동계획과 외국인력지원센터 발전을 위한 work-shop주제 검토 의견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료이미용

3월의 제10회 무료 이미용 서비스의
날을 실시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외국인력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깔끔하고 멋진 모습이 되어
스마일~~하며 만족한 웃음을
건네주시고 가셨네요 ^^

도움을 주시는 경남봉사미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한국어 새 강사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
새로이 한국어 강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박지희' 선생님 환영하고
앞으로 외국인력분들과 함께
더욱 좋은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를
만들어나가요~~



여성의 날

완연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오늘은 다름아닌 '여성의 날'
이에요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도
여성분들을 위해 작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모든 여성분들 감사합니다^^



임용장 수여

3월 11일, 임용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교육 문화팀의 박남숙 주임님이
팀장공모 결과 뽐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39회 TOPIK 시험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통해 당당하게 TOPIK 시험
합격하는 창원외국인력센터의 수강생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모두들 시험 잘 보시고
합격 하세요^^
하이팅!!!!

제 39회
TOPIK시험



베트남 근로자 교류의 날

2015년 3월 15일 일요일 제2회
베트남근로자 교류의 날 이였습니다.
베트남근로자 상담, 안내와 함께
점심시간을 이용해 베트남음식인 쌀국수를
먹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트남 봉사단 분들이 직접 쌀국수를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



사회공헌활동

2015년3월21일 토요일 센터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센터와 지역사회의 상생이라는
인식하에 단순 자선 및 기부문화에서
벗어나, 본 센터의 직원들과
외국인근로자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이웃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사랑의
연탄배달을 통해 나눔의 정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원병원무료진료

3월22일 일요일,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무료진료가 있었습니다.

창원병원에서 진료를 봐주셨는데,
아픈 외국인근로자 분들을 정성껏
봐주셨습니다. 앞으로 5월, 9월,
11월에 창원병원 무료진료가
계획되어 있으니 많이 찾아주세요.
창원병원 의료진분들 감사합니다.^^



생활법률교육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한국 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생활, EPS 관련 법률
지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어요~~
많은 외국인력분들이 참가해주셔서
교육의 열기가
더욱 후끈해졌네요 ^^



맑고 밝은 눈 치료

2015년 3월 29일 일요일

마산대학교 안경공학과와 국제보건의료
안경자원봉사단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눈과관련된 건강상담을
실시 하였습니다.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참여하여
건강상담을 실시 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자외선예방을 위한
선글라스도 선물로 제공되었습니다.

이번 건강상담을 지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생일파티



봄 기운이 만연한 3월의 마지막 일요일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3월 생일을 맞이하신 외국인력 분들을
위한 생일 축하 행사를 실시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마산 의료봉사 지원단에서도 함께 축하를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1/4분기 workshop

3월의 마지막날,
창원외국인력센터에서는 직원들의
1/4분기 workshop이 있었습니다.
상담팀과 교육문화·운영팀의
2015년 팀별계획 발표시간을
가졌고, 3월 상담사례발표에서
최우수상담사례가 이현정쌤으로
뽑혀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workshop은 특별히
한국경제연구소의 한동은
고문님께서 오셔서
"외국인력지원센터 발전을 위한
직원의 역할"이라는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내용



사진

사진

CFC 우수상담사례

▶ 건강 관련 상담 ◀

상담통역원 이현정

○ 상담개요

- 근로자는 1개월 전에 베트남 여성과 성관계 한 후 몸에 붉은 반점과 두통이 심하다고 한다. 혹시 에이즈에 걸린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어 병원에서 에이즈 검사 및 성병 검사를 받아 보고 싶어 하였다.



○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와 함께 에이즈 검사 및 성병 검사를 받기위해 병원에 방문하였다.
- 일반적으로 에이즈검사는 HIV라는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유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 항체가 나오는 시기에 맞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체는 몸 속에 바이러스가 침입 되었을 시 발생하는 것으로 사람에 따라서 120일이 경과하면 99%이상 항체가 형성되지만, 감염 행위를 한 후 12주 이후에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에이즈는 에이즈 감염자와 성관계나 수혈 등을 통하여 감염이 되므로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최소한 6주는 지나야 여러 가지 상황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근로자는 에이즈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지만 2015. 3. 12(목) 1차 면역검사를 받고 2차 면역검사는 3개월 후에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한다.
-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염려가 되어 체류기간(3년)을 채우지 못하고 2015.3.26. 귀국할 예정이다.

2. 상담포인트

- HIV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라고 부른다. 이 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로 전염되며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면역세포를 파괴시키는 바이러스이다.
- HIV 감염자는 HIV가 몸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일정한 면역수치(CD4 200cell/mm³ 이상)를 유지하면서 몸에 뚜렷한 증상이 없는 상태이고, 에이즈 환자란 HIV에 감염된 후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체계가 파괴되어 면역세포수가 200cell/mm³ 이하이거나 에이즈라고 진단할 수 있는 특정한 질병 또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 에이즈 초기증상으로는 발열, 인후통, 피부발진, 구역, 구토, 설사, 피로감, 림프절 종대, 근육통, 두통, 관절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킨다.
- 에이즈 감염 경로는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자의 체액 즉,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모유 등을 통해 감염된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4조(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조(목적),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 HIV 양성으로 확진이 되면 관련 병원에서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감염자는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되며, 감염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다.
- HIV에 감염된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12항에 의거하여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CFC 4월 행사 안내

첫째 주

▶ 바다무지개 4월호 발간

둘째 주

- ▶ 필리핀음식커뮤니티 (11:00~13:00)
- ▶ 찾아가는 이동서비스
 - 장원 명서성당,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 ▶ 통영고용센터 이동상담

셋째 주

- ▶ 무료이미용서비스 - 교육실복도 (09:00~12:00)
- ▶ 마을한의원과 함께하는 무료진료-센터상담실 (15:00~17:00)
- ▶ 진주고용센터 이동상담
- ▶ 상담통역원 역량강화교육 (15:00~17:00)

넷째 주

- ▶ 산업안전교육 - 다목적홀 (14:00~17:00)
- ▶ 통영고용센터 이동상담

다섯째 주

- ▶ 제40회 TOPIK시험 실시 - 경남대학교 (08:00~)
- ▶ 산업안전교육(자제교육)-한국어초급,중급반교실(11:00, 14:00)
- ▶ 제7회 펄썩썩상 대회-컴퓨터교실(14:00~)
- ▶ 마산대 작업치료학과와 함께하는 건강상담 - 센터상담실 (14:00~17:00)
- ▶ 외국인근로자 생일축하행사-다목적홀(15:00~)

매주 토요일

- ▶ 토요일상담-외국인근로자 기숙사 및 이용식당 (13:00~16:00)
- ▶ 토요일상담-장원외국인복지지원센터 내(16:00~21:00)

CFC와 함께해요😊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를 사랑해주실 준비

가 된 분들이라면 누구나 OK~! 망설이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자원봉사자여러분을 기다립니다.

e-mail: mfwc@hanmail.net ☎ 055-253-5270~4

홈페이지주소: www.mfwc.or.kr/ (누르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070-4481-6703



070-4481-6702



070-4481-6701



070-4481-6704



070-4481-6705



070-4481-6706

나라별 상담전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 후원 계좌 >

경남은행 513-07-0195121

예금주: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